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주일
제37권 22호(가해) 2017년 4월 23일

[묵상]



<네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이 신앙이라 한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도 훌륭한 이들이 되어야 할 것.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믿음은 계산된 것이 아니다.
그저 소박하게 하느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사실 기적을 가져오기도 한다.

계산하고, 증명하는 믿음,
논리적으로 확연한 믿음은
결국 바로 그 논리라는 것에 의해서 어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냉담하게 스스로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불신이나, 의심이 끼어들 틈이 없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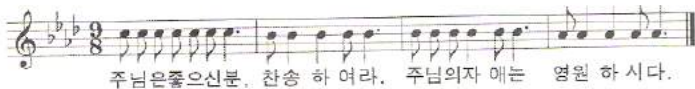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정상수, 김금구 & 유안나,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생) 이만석 미카엘, 신혜정 로사가정,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정
주일 학생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엄 안토니오 (생) 김병록 요셉 & 김지희 체칠리아
주일 낮 미사	(연) 고준희 제임스, 박정미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구자하 베드로, 정계복 마리아, 오원순 안나, 박준구 요한, 연옥영혼, 정상수, 패기 이와니키 (생) 정애나 & 린다 & 엘리스, 손석 스테파노, 김진엽 마리아, 오레이몬드 & 오스텔라, 토복 구역원 들의 가정, 박준범 요한 & 김은경 올리안나, 이행자 리드비나의 가정,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2.42-47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
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
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
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
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
며 즐거워하세.○

제 2독서 베드로1서(1 Peter) 1.3-9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
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 음 요한(John) 20.19-31

영성제송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

1. 찬미 받으소서(LAUDATOSI).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저
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라고 노래 하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
치스코 성인께서는 이 아름다운 찬가에서 우리의 공동의 집
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
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십니다.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
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
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2.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
사하신 제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로 상처
입은 우리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은 흙과 물과 공기와 모든 생
명체의 병리 증상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압받
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 받고 혹사 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있습
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창세
2.7 참조). 우리의 몸은 지구의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
리는 그 공기를 마시며 지구의 물로 생명과 생기를 얻습니다.

이세상의그어떤것도우리와무관하지않습니다

3. 50여년 전에 세계가 핵 위기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던 무렵
성인 요한 23세 교황님께서서는 전쟁 반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평화를 제안하는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서는
“가톨릭세계”뿐 아니라 “선지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제 우
리가 세계적인 환경악화에 당면하였기에 저는 이 지구에 살
고 있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속적인 선교 해신을 촉구하고자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썼습니다. 이제 저
는 특별히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
고자 이 회칙을 씁니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62	162	162
봉헌	259	259	256
성체	284	284	309
파견	167	167	172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

지난 2월 19일, 팔도사투리 연기로 유명한 영화배우 김지영(마리아 막달레나) 자매님이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자매님은 늘 목주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수입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쪼개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후배 배우들의 회개를 위해 힘썼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톨릭 교리를 변호하며 입씨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이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갖게 된 데는 나름의 특별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기자였던 그녀의 결혼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니다. 남편은 늘 술에 절어 방황하고 몇 달씩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중병에 걸려있어 그녀는 13년간 병수발을 하며 가장이 되어 온종일 일해야만 했습니다. 차비가 없어 걸어 다녔고, 점심값이 없어 굶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촬영을 끝내고 병원에 돌아오니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을 붙들고 하느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화해도 못 했는데 너무하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무가내로 하느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정말 남편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광경에 놀라 사람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자매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이들은 내가 잘 키우겠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남편은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그녀는 남편 장례식을 마치고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1986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탄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느님께서 진정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변에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믿는 만큼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불신이야말로 불행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하느님도 믿지 못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마르 10,52 참조)

믿음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고, 큰 능력이고, 기적이 됩니다. 믿음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토마스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토마스는 믿지 못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요한 20,25 참조)

토마스가 나중에 주님을 보고 비로소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요한 20,28)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하게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라고 꾸짖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이며 신비입니다. 또한 부활 신앙은 부활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의 삶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서울대교구 홍보국

강아지랑 나랑

산에서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데,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다리에 감기며 따라오는데,
발을 굴려도 한참을 따라오는데,
무서워 스틱을 막 휘두르는 순간
주인이 강아지를 끌고 갔는데,
집에 와서도 그 강아지 자꾸 생각나네.
주인은 모르는 척하고
처음 본 이를 따르던게 낯설지 않아서.
천지분간 못하는 게 어딘가 익숙해서.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유지아 클라라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1독서	시무궁 루이스	김교복 레오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	유보나 보나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재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송인선 안젤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	정진옥 노엘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	이만석 미카엘	이순자 비비안나	김금자 테레사
재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4월 24일 부터 월요일 새벽미사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5월 첫 주는 (2일,3일 4일,5일) 본당 신부님 휴가로 평일 미사 없습니다. 첫 토요 신심미사는 예전 그대로 오전 8시30분에 있습니다.

- ◆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25~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21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 첫영성체 학보모 모임
 - 일시 : 4월30일(주일) 10:30 AM
 - 장소 : 2층 첫 영성체 교실
 - 문의: 켈리 현 ☎(310)560-4968

-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격 :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은 8.6.2017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 ◆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지소서"(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컵, 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K.C. R.M)714-343-4771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 ~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4월 23일: 카레라이스(\$ 3, PV2반)
*주일학교 : 카레라이스(11학년)
 - 4월 30일: 돼지 불고기 쌈밥 (\$ 3 , PV3반)
*주일학교 : 밋볼 샌드위치(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7 1581 219 1974">교무금</td><td data-bbox="219 1581 818 1974"> 김교복 김병태 김선영 김씨니 김여순 김영경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미경 박상준 박완철 박은영 신정훈 신순철 유영균 윤화경 이재용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최희숙 황인중 합계:\$ 2,780 </td></tr> </table>	교무금	김교복 김병태 김선영 김씨니 김여순 김영경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미경 박상준 박완철 박은영 신정훈 신순철 유영균 윤화경 이재용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최희숙 황인중 합계:\$ 2,780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18 1581 950 1974">성전헌금</td><td data-bbox="950 1581 1570 1974"> 김교복 김씨니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상준 박완철 신정훈 신순철 윤화경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황인중 합계 : \$1,170 </td></tr> </table>	성전헌금	김교복 김씨니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상준 박완철 신정훈 신순철 윤화경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황인중 합계 : \$1,170
교무금	김교복 김병태 김선영 김씨니 김여순 김영경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미경 박상준 박완철 박은영 신정훈 신순철 유영균 윤화경 이재용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최희숙 황인중 합계:\$ 2,780				
성전헌금	김교복 김씨니 김운진 김정선 김찬구 김충섭 박광자 박상준 박완철 신정훈 신순철 윤화경 이효세 임 순 장영우 정규숙 황인중 합계 : \$1,170				
주일미사헌금 : \$ 4,452	사순애공봉투: 6,942.93 예루살렘 성지 보존헌금: \$937				

남가주 소식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 영신수련
- 강사 : 신원식 신부(예수회)
- 일시 : 5월16일 (화)~17일(수), 저녁 7시~9시
- 문의 : 성아그네스 성당
- 문의 : 하세실리아 ☎ (323)578-2230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심표’

- 주제:‘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 \$130
- 신청 :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 2366

◆예수성심 피정의 집 전립

- Payable to :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구좌번호 :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제 37기 성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 강의 : 2017년 4월23일(주일) 낮 1시~5시
24일(월)저녁 6시~10시 중 하루
- 교육방법 : 첫날 3시간강의, 1시간실습,
첫 교육 후 10회 실습합니다.
- 교육비 : \$200 (당일 지불)
- 장소 : 성아그네스성당 회의실
1451 Dana St. LA,CA 90007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김정희 올리아 04/0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04/22(토)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이정 카타리나 04/21(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교복 레오 04/22(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최상단 사비노 04/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04/15(토)오후12시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오창애 안나 04/21(금)오후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테레사 04/17(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남현 막시모 04/0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박정희 마리아 04/10(월)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윤진 카타리나 04/08(토) 오후6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4/7(금) 십자가의 길로 대체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동진 스테파노 04/21(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04/08 (토) 봄 야유회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박운모 아가다 04/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다음주일 단체모임

주님의 작품 감상법

‘하느님께서 물은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

주님께서 천지창조 사흘날 만드신 바다는 제게 큰 의미입니다. 저는 수중 호흡 장비를 가지고 잠수를 하는 스쿠버 다이버입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잘하고픈 욕심이 커져 2년 전 시험을 통과하고 프로 강사가 되었습니다. 바다는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제겐 늘 두려운 존재입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멈춰야 할 때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다를 존중하고 나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지요. 다이빙은 제게 레저스포츠로서의 즐거움 외에도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주님께서 천지창조 닷새 날에 바다의 온갖 생물 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우라” 하셨습니다. 내 몸의 몇 배 크기인 바다 생물체를 만나는 일은 가슴 뛰는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은 대단한 예술가시구나.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지요. 그럴 때면 인간이 숨 쉴 수 없는 세상에 나를 초대해 준 바다와 바다 생물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평화를 빕니다.”

등산 코스에도 여러 난이도가 있듯이 바다도 쉬운 바다와 어려운 바다가 있습니다. 조류가 세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온도가 많이 낮은 바다는 상대적으로 다이빙하기 어렵습니다. 숙련되지 않은 다이버 들이 실력에 맞지 않는 바다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해 산호를 부러뜨리거나 손발로 생물들을 건드리면서 바다를 아프게 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바다의 입장에선 ‘불청객’인 셈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 온갖 기물을 파손하거나 독보적인 예술가이신 하느님의 작품 전시회에서 작품을 훼손하는 격이지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름다움 그대로를 감상한 후 마치 다녀가지 않은 것처럼 떠나는 것이 바다를 찾는 다이버들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바다에서 얻은 배움으로 생각해보니 하느님께서 바다 생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애정을 가지고 만드신 작품이 인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의 예술성이 깃들어있어 아름답고 경이로운데 우리

는 종종 그분의 멋진 작품을 마음대로 훼손하곤 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재단하여 상대를 아프게 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요. 주님께서 보시고 참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바다 환경을 훼손하는 다이버를 보거나 들으면 질색하는 제가 물 밖에서 어떤 이의 존재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훼손하진 않았는지, 누군가에게 불청객이 되진 않았는지, 주님의 멋진 작품인 또 다른 인격체를 만났을 때 그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마음에 인식하진 않았는지. 고요한 바닷속에서 오로지 나의 호흡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은 땅 위에 존재하는 주님의 작품들을 잘 감상해 보려 합니다.

◆ 최송현 카타리나/ 배우

[이게 궁금했어요]

주일학교 어린이가 “마귀가 마음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물어 왔습니다. 무엇이라고 답을 주어야 할까요?

☞ 어린이의 질문을 귀담아 들어주신 선생님의 자상한 배려가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결코 어느 누구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귀의 유혹은 누구에게나 작고 은밀하며 혹은 달콤합니다. 우리를 “감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계락이기에 치밀하기까지 하지요. 악한 생각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조정하는 마귀의 것입니다. 다만 마귀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점을 단단히 일러 주십시오. 하느님의 뜻과 마귀의 계락을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세요. 그것은 예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면 명확한 것이니까요. 또 하나 명심할 것은 하느님께서 언제나 이웃과 ‘함께 살라’하셨기에 친구를 위해서 낮아지고, 손해 보는 것을 꼭 칭찬해 주시는 분이려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의 요점, 마귀는 늘 거짓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면 좋겠군요. 유혹이라 여겨지면 즉시, “이제 가라”고 마귀를 야단치라고 하세요. 단순하지만 명쾌한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마귀를 야단쳐 쫓아 주실테니까요. 혹은 “마귀, 이리와 예수님께 종아리 맞자”라고 단호하게 뿌리치는 방법도 마귀를 이기는 신나는 전략이라고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 장재봉 신부/ 부산교구

미사종(鐘)의 의미

미사 중에 복사가 치는 종을 ‘미사종’이라고 합니다. 미사종을 치는 이유는 미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미사의 종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쁨과 환희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종을 치나요? ‘거룩하시도다’가 끝나면 사제는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헌된 예물을 축성해 주시기를 청하며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2양식)

이 기도문을 바칠 때 사제는 두 손을 모아 빵과 포도주 위에 퍼 얹은 다음에 십자 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때 첫 번째 종을 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시간이 시작되므로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제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계약의 피다.”(마르 14,22-25 참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읊게 되는데 이 순간 빵과 포도주가 각각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 이를 성 변화(聖變化)라 합니다.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사제가 잠시 높이 들면(성체거양 聖體舉揚, 성혈거양 聖血舉揚), 성체와 성혈을 우리르자는 신호로 종을 칩니다. 그 다음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내려놓고 참례자들과 함께 허리를 깊이 숙여 흠숭의 예를 표하는데, 이때 절을 하기 위한 신호로 종을 칩니다. 마지막 종은 사제가 미사에 참례한 모든 신자를 대표하여 성체와 성혈을 영할 때 칩니다.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이므로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통상적으로 여섯 번의 종을 칩니다. 특별한 이유로, 성 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 때 길게 종을 치고, 그 후 부활 성야 미사의 대영광송 전까지 종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우리도 엄숙하게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성야 미사의 대영광송 때 사제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라틴어로는 Gloria in excelsis Deo!)”을 소리 높여 노래하면 다시 길게 종을 칩니다. 이때 장엄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Quiz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단어를 찾아 빈칸을 채우세요.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미	사			부					혈
		소						야	
	허			성		거	양	미	
								사	

4월16일 자 정답: 빛

「성경 속 동식물」 15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갈망했던 마늘

마늘은 민수기에 유일하게 등장한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 줄까?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나는구나.”(민수 11,4-5)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실증을 느끼고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 생선, 파, 마늘 같은 것을 먹을 수 없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마늘은 광야에서 해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워한 이집트 식품 중 하나였다.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의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빌리지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티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